

두아디라 교화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란, 아직은 말씀대로 지켜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할 만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칫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벌을 받습니다. 물론 같은 죄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수군수군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곧 스스로 재판자가 되는 큰 죄임(약 4:11)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만큼 더 큰 사단의 송사거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깊이가 다 다르며 그것에 따른 사단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초신자는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며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장단계에 비유하면 아직 젖이나 죽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니 이들

을 향해 주님께서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지요(계 2:25). 이는 그들에게 성결하라든가 권능을 받으라는 등의 깊은 영적인 차원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라도 굳게 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현 상태만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칫 안일한 생각이 틈타 '이 정도면 됐으니 좀 쉬어야지' 했다가는 마치 사공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노 젓는 일을 멈추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세찬 물결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에는 엄청난 퇴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세월을 아껴 뜨겁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두아디라 교화에 권면하신 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란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쁘게 해 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창 1:28).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권세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눅 4:5-6).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

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권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습니다(요 1:12). 그러나 이때부터는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빛에 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것이며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훼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해 요인을 만드는가 하면, 의심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풍조를 좇아 살아가도록 미혹하지요.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악을 버림으로 성결의 차원에 이르면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으며(요일 5:18)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만큼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도 능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 삽니다. 특히 니골라 당이나 발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행위를 좇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철장'은 쇠막대기나 쇠 지팡이를, '질그릇'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은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이며 참으로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써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여 여전히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버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요 12:48).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서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 2:27)는 말씀처럼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빛의 권세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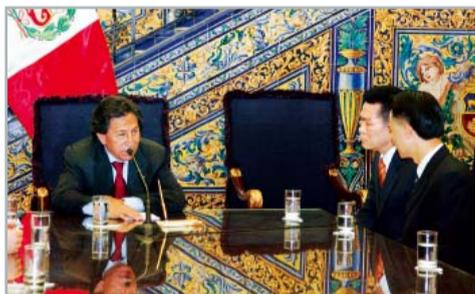
새벽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서 바로 주님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벽 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여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는 사람을 아들로 인정하며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영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원수 마귀 사단에게 지는 사람은 새벽 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 상급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하신 말씀처럼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남미 대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 알레한드로 툴레도 페루 전 대통령은 강사 이재록 목사를 대통령령으로 초청하여 환담을 나눴다.

▶ 2004년 페루 리마 캄보 데 마르데 공원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가톨릭 국가이지만 일부 백인들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페루 리마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50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이즈(AIDS)를 비롯한 치료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중남미 대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깊고 푸른 하늘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오로라 빛처럼 은혜와 감동의 GCN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7 July 주요프로그램

-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 당회장 이재록목사의 **창세기강해**
-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특별은사집회 1,2,3**
- 특선영화 **'왕중왕'**
-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팔복'**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